

日本語 起源論과 韓日語 比較에 대하여 Ⅲ

——韓日語 相互交渉에 관한 日本側の 資料⁽¹⁾——

李 庸 周

Ⅶ. 概 觀

韓半島에 있어서의 日本語에 대한 關心보다 日本에 있어서의 韓語에 대한 關心이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컸던 것 같다. 17세기末부터 계속 쏟아져 나온 韓語 學習書 내지 韓語 또는 韓日語 比較研究에 관한 論著만도 相當한 數에 달한다. 그중에는 본격적인 比較나 對照에 의한 研究物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 專門의인 言語 研究家와, 史學者등 非專門家들에 의해서 韓語나 韓日語의 比較가 不斷히 繼續되어 온 것이다.

韓半島에 있어서, 日帝壓政의 數十年을 除外하면, 日本語에 대한 관심이 微微했던 것과 對照의이다.

이렇게 日本人들이 일찍부터 韓語나 韓日語의 比較에 큰 關心을 보인 까닭은 무엇인가? 그 몇 가지 要因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包含될 수 있을 것이다.

① 日本의 民族이나 國家의 形成에 參與한 많은 사람이 韓半島로부터 건너갔으며, 그들은 支配階級 내지는 知識階級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라는 可能性.

② 古代로 올라갈수록 學術이나 其他 모든 文化는 韓半島로부터 日本列島로 一方的인 흐름을 보였다. 이것은 모든 文化를 韓半島에 의지했음을 의미한다.

③ 이러한 政治나 其他 文化的인 特徵으로 보아 韓半島는 그들의 模範이었으며 崇仰의 對象이었으므로 모든 것에 대해 好奇心을 가졌을 것이고 알려고 했을 것이다.

④ 結果적으로 韓語에 대한 關心이 클 수밖에 없었고 韓日語의 比較나 對照에 큰 關心을 보였다.

⑤ 特히 日本語의 起源이나 그 系統에 대한 關心이 커지고 研究가 行해짐을 따라 韓日語의 關係를 밝히려는 必要나 努力이 增大했다.

⑥ 日本의 政治, 制度, 歷史등을 研究하는 데 있어서 韓日을 比較해야 했으며, 자연 韓

* “日本語起源論과 韓日語比較에 대하여 Ⅱ”(師大論叢 21輯)에서 “ x^2 檢定法”(p. 85)이라 된 것은 “ x^2 檢定法”의 잘못이며 그 內容중 x^2 로 된 것은 x' 로 정정한다. 그리고 專門用語는 原則의으로 原典의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였음을 밝혀둔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1) 이들 資料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를 모두 상세히 분석 검토해서 그 內容까지를 調査研究해야 할 것이지만 그것은 一二年에 될 일도 아니어서 우선 어떤 자료들이 있는가에 대해서만 그 대강을 一覽하기로 한다. 누락된 자료나 기타 잘못 파악한 것이 많을 줄이나 장차 補充修正하기로 한다.

日語의 比較 對照가 行해질 수 밖에 없었다.

⑦ 極히 一部에서는 韓日合併을 正當化하고 韓半島를 支配하기 위한 口實을 마련하는 手段의 하나로 韓日語의 同祖論이 必要하기도 했다.

⑧ 純粹한 學術的인 欲求로 韓日語의 系統이나 起源 其他의 關係에 대한 研究도 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몇가지 理由는 關心이나 研究熱을 加重시켰을 것이 틀림없다.

이밖에도 몇가지 더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特히 最近에 와서 日本人들은 自身들의 이론바 루트를 찾는다는 데 이상한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따라 韓日語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그 결과, 많은 論者들이 나오고 있으나 그 중에는 독자를 혼란시키는 것 외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것들도 상당히 있다.

韓國語가 어떻게 日本語 속에 浸透되어 있는가, 韓日兩言語는 相互間 어떤 關係에 있으며, 特히 韓語는 日本語에 어떤 影響을 미치고 있는가, 또는 日本人들은 國語나 韓日兩言語의 相互交渉에 관한 研究를 얼마나 했는가를 알아 볼 수 있는, 많은 資料가 日本에 있다.

日本書紀, 古事記, 萬葉集과 같은 것은 생생한 韓語가 섞여 있는 文獻들이다. 그리고 이 미 17世紀末부터 보이는, 日本의 知識人 學者들에 의한 많은 研究 論著가 남아 있다.

우선 韓語나 韓日語의 比較的 對照的 研究 論著에 어떤 것이 있는가를 一瞥하고 日本書紀에 관한 몇가지 문제를 알아보기로 한다.

VIII. 論 著

日本에서는 일찍부터 韓語의 學習書가 刊行되었고, 韓日語의 關係에 대한 專門的·非專門的 論著가 계속해서 出刊되었다.

여기 보이는 것은 그 完全한 目錄이 아니다. 그러나 대강 어떤 것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程度의 자료는 되리라고 본다. 우선 둘 이상의 論著를 낸 사람들을 中心으로, 그들의 論著 目錄을 보이고 다음에는, 韓日語의 比較나 對照를 보다 직접적으로 다루었다고 생각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文獻을 든다. 그리고 끝으로 其他의 文獻을 들기로 한다. 그러나 筆者가 各 文獻을 살살이 뒤지고 調査 分析한 끝에 만든 一覽表가 아니므로 여러 가지 면에서 실수했을 가능성은 크다.

1. 金澤庄三郎⁽²⁾

1895	明治 28	日本文法講義(大正 2, 改題 日本文法新論)	早稻田大學文科講義錄
1899~1900	明治 32-33	諺文의 起源	朝鮮月報・言語學雜誌
1900	" 33	朝鮮に關する西人の研究	朝鮮月報 3, 言語學雜誌 3(3)

(2) 氏は 日本語를 中心으로 한 東洋語의 研究 그 중에도 韓語에 造詣가 깊다고 한다. 특히 그는 그 해괴한 韓語와 日本語의 同祖論을 主張하여 화제가 된 일이 있다. 많은 論著를 내놓고 있으나 그중 韓日語의 比較研究와 같은 경우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1901	明治 34	假名の起源に就いて	
1902	" 35	日韓語比較論及動詞論	學位論文
"	" "	日韓比較文法	
"	" "	郡村の語源に就いて	史學雜誌 13(11)
1903	" 36	寧樂考	" 14(11)
"	" "	日本文法論	
"	" 36	國語學刷新の時機	教育 38
1903~4	" 36-37	言語學(吏讀音)	國學院雜誌 9(10)
1904	" 37	朝鮮地名字彙略評に答ふ	史學雜誌 15(1)
"	" "	古事記の一節に關する私疑	帝國文學 10(1)
"	" "	言語に關する韓國の遊戲	太陽 10(1)
1905	" 38	五十音圖につきて	中學世界 8(9)
"	" "	名詞の性に關する研究	國學院雜誌 11(7)
"	" "	形容詞考	教育學術會 10(4)
"	" "	延言考	帝國文學 11(1)
"	" "	國語學に對する予の希望	國學院雜誌 11(1)
1906	" 39	活用に關する私見の一節	國學院雜誌 12(6)
"	" "	家族の稱呼に關する二三の考	早稻田學報 129
"	" "	耳目鼻口	教育學術界 12(4)
"	" "	郡の語源	帝國文學 12(1)
1907	" 40	日韓兩國語文字組織上に於ける梵語の影響	
1908	" 41	日韓滿蒙語の研究について	東亞の光 3(11)
1909	" 42	外來語について	帝國文學 15(1)
"	" "	敷島考	讀賣新聞
"	" "	日韓兩國語同系論	東洋協會調查部報告 1
1910	" 43	The Common Origin of the Japanese and Korean Language	
"	" "	日韓兩國語同系論	三省堂
"	" "	國語の研究(論文 33篇)	
"	" "	言語の研究と古代の文化	國學院雜誌 16(2)
"	" "	神奈備考	史學雜誌 21(6)
"	" "	朝鮮に於ける國語の問題	讀賣新聞
"	" "	琛湯考	東亞の光 5(12), 神社協會雜誌9(11)
"	" "	日韓の古地名に就いて	史學雜誌 21(1)
1911	" 44	朝鮮語講義について	朝鮮總督府
1912	" 45	日語類解	三省堂
"	" "	日鮮古代地名の研究(日獨兩文)	朝鮮總督府
"	" 45	日本文法新論	早稻大學出版部
"	大正 1		
"	" "	陸奥考	史學雜誌 23(1)
1913	" 2	言語の研究と古代文化	弘文館 1~152, 國學院雜誌 16
1929	昭和 4	日鮮同祖論	

- 1932 昭和 7 新羅の版假字
 1941 " 16 「言語に映じたる」原人の思想
 1951 " 26 朝鮮研究と日本書記
 1955 " 30 神名と地名—日韓上古の研究
 1956 " 31 鹽と味噌
 1957 " 32 朝鮮語と助詞(イ)
 1960 " 35 日鮮兩語の比較につきて

- 還曆祝賀會
 創元社
 朝鮮學報 第一輯
 鶴見女子短期大學紀要 1
 朝鮮學報 9
 國學院雜誌 58(5)
 國學院雜誌 61(12)

2. 大野 晋

- 1945 昭和 20 萬葉集卷十八の本文について
 1947 " 22 うつせみの語義について
 1952 " 27 日本語の系統論はどのように進められて來たか
 " " " 日本語と朝鮮語との語彙の比較についての小見
 " " " 上代假名遣の研究
 1956 " 31 基本語彙に關する二三の研究
 1960 " 35 日本語の起源
 1975 " 50 日本語をさかのぼる

- 國語と國文學
 文學
 國語學 10
 國語と國文學 29(5)
 岩波書店
 國語學 24
 岩波書店
 岩波新書

3. 小倉進平

- 1917 大正 6 日鮮單語比較資料
 1919 " 8 訓民正音
 1920 " 9 國語及朝鮮語のため
 1924 " 13 新羅語と慶尙北道方言
 1928 昭和 3 國語と朝鮮語との繼續的關係に就いて
 1929 " 4 日韓兩國語同系論
 1930 " 5 馬に對する朝鮮語
 1934 " 9 朝鮮語と日本語
 1935 " 10 朝鮮語の系統(岩波講座東洋思潮所收)
 1936 " 11 交隣須知
 " " " 交隣須知について
 1938 " 13 謙讓法尊敬法の助動詞
 1940 " 15 朝鮮語學史

- 鷄林文壇 1-4
 藝文誌 10(8)
 ウツボヤ書店
 「亞細亞研究」大阪東洋學會 1
 警語集報 2(62)
 京城日報 5月 19日
 國語科學講座 明治書院
 岩波書店
 國語と國文學 13(6)
 國語と國文學 13(6)
 東洋文庫
 河野六郎補注刀江書院(1956訂補)

4. 河野六郎

- 1946 昭和 21 中期朝鮮語の完了時稱に就いて
 1948 " 23 中期朝鮮語の過去 deに就いて
 1950 " 25 故小倉進平博士
 1951 " 26 中期朝鮮語の時稱體系に就いて
 1957 " 32 On the "Tense" System of Middle Korean Verbs
 1962 " 37 中國語の朝鮮語に及ぼした影響
 1964 " 39 言語學から見た古代の日鮮關係

- Tōyōgōkenkyū 1
 " 4
 言語研究 16
 東洋學報 34(1, 4)
 The Memories of the Research Department of the Tōyō Bunko
 言語生活 129
 朝鮮學報 32

- 1967 " 42 古代日本語と朝鮮語
1971 " 46 中國語・朝鮮語

ことばの宇宙 2(4)
言語の系統と歴史

5. 白鳥庫吉

- 1895 明治 28 朝鮮古代諸國名稱考 史學雜誌 6編 7~8號
1895~96 " 28~29 朝鮮古代地名考 " 6編 10-11, 7編 1
1896 " 29 朝鮮古代王號考 " 7編 2
" " " 朝鮮古代官名考 " 7編 4
" " " 高句麗の名稱に就きての考 國學院雜誌 2卷 10
1897 " 30 吏道 史學雜誌 8編 1
" " " 日本書紀に見えたる韓語の解釋 " 8編 4, 6, 7
1898 " 31 日本の古語と朝鮮語との比較 國學院雜誌 4編 4-12
1899 " 32 日本語と朝鮮語との比較について福田君に答ふ " 5編 6
1900 " 33 漢史に見えた朝鮮語 言語學雜誌 1卷 3, 4, 5
1901 " 34 再び朝鮮の古語に就て " 2卷 1
1904 " 37 中田君が郡村の語源に就ての考を読む 史學雜誌 15編 9
1905 " 38 韓國古代村邑の稱呼たる忽(kai) " 16編 11
" " " 言語學上より見たる「アイノ」人種(講演) 白鳥庫吉全集 2
" " " 國語と外國語との比較研究 " 16編 2-12
" " " 中田君が韓國古代村邑の稱號たる啄評, 邑, 勒, 擔魯及び須祇に就きての考を読む 史學雜誌 16編 10
1905~6 " 38~39 韓國城邑の稱號たる忽(kol)の原義に就いて " 16編 11, 17編 1-3
1906 " 39 國語に於ける敬稱語の原義に就て " 17編 4, 11, 12
" " " 新羅の國號に就いて 歴史地理 8卷 5號
1909 " 42 日韓アイヌ三國語の數詞について " 20編 1, 2, 3
" " " 八の數を尙ふ古習 學習院輔仁會雜誌 79
1911 " 44 肅愼考 歴史地理 17卷 1
1912 " 45 漢の朝鮮四郡疆域考 東洋學報 2卷 2;
滿洲歴史地理 1卷
1915 大正 4 言語上より觀たる朝鮮人種 人類學雜誌 30卷 8
1928 昭和 3 高麗の喇嘛僧吃折思八八哈思の名義に就いて 史學雜誌 39編 5
1929 " 4 『高麗史』に見えたる蒙古語の解釋 東洋學報 18卷 2
1936 " 11 日本語の系統 岩波講座「東洋思潮」
1970 " 45 朝鮮語の數詞について(未發表遺稿) 白鳥庫吉全集 2

6. 宮崎道三郎

- 1903 明治 36 都加佐名義考 法學協會雜誌 21(4)
1904 " 37 朝鮮語と日本法制史 國家學會雜誌 20(9)
" " " 朝鮮音流村の地名を論じて日本古代の内治外交に關する二三の事項に及ぶ " 21(2)
" " " 日本法制史の研究上における朝鮮語の價值 史學雜誌 15(7)
" " " 朝鮮語と日本歴史 東洋學藝雜誌 279
1905 " 38 賒と出舉 國家學會雜誌 223, 226

- | | | | |
|---------|----------|------------------------|---------------------------|
| 1905~6 | 明治 38-39 | 姓氏雜沚 | 法學協會雜誌 23(2, 3, 11) 24(3) |
| 1906 | " 39 | 佐刀(郷里)の原義 | 國家學會雜誌 20(10) |
| " | " " | 障の字義を論いて日本支那印度古代の手形に及ぶ | 法學協會雜誌 24(2) |
| " | " " | 啄評の原義 | 史學雜誌 17(1) |
| 1906~7 | " 39-40 | 日韓兩國語の比較研究 | " 17(7)-18(11) |
| 1907 | " 40 | 部曲考・部曲考補遺 | 法學協會雜誌 25(3, 4) |
| 1908 | " 41 | 阿利那禮河と新羅の議會 | " 26(4, 5, 7) |
| 1909 | " 42 | 勝部考 | " 27(3) |
| " | " " | 履中紀の史に就て | 國學院雜誌 23(1) |
| 1910 | " 43 | 毛麻利叱智に就いて | 東亞の光 5(10) |
| " | " " | 漢字の別訓轉用と古代に於ける我邦制度上の用語 | 法學協會雜誌 28(5) |
| 1910~11 | " 43~44 | 任那雜考其一 任那疆域考 | 國家學會雜誌 24(12) 25(2) |
| 1911 | " 44 | 任那宰の韓名「吉」の本義 | 法學協會雜誌 29(3) |

7. 中田 薫

- | | | | |
|------|-------|-------------------------|---------------|
| 1904 | 明治 37 | 郡村の語源に對して専門家の御教示を乞ふ | 史學雜誌 15(7) |
| " | " " | 再び郡村の語源について | " 15(11) |
| 1905 | " 38 | 郡村なる語の原義 | 國家學會雜誌 217 |
| " | " " | 四たび郡村の語源について | 史學雜誌 16(7) |
| " | " " | 韓國古代村邑の稱呼たる喙評邑動擔魯及び須祇の考 | 史學雜誌 16(8) |
| " | " " | 韓國古代村邑の稱呼に就て白鳥博士に答ふ | " 16(11) |
| " | " " | 可婆根考 | " 16(12) |
| 1906 | " 39 | 日本莊園の研究 | 國家學會雜誌 20(12) |
| 1907 | " 40 | 我が古代の法制關係語 | " 21(9) |

8. 金田一京助

- | | | | |
|------|-------|----------------|----------|
| 1938 | 昭和 13 | 國語史：系統論(國語史叢書) | 刀江書院 |
| 1942 | " 17 | 増補國語研究 | 八雲書林 |
| " | " " | 國語の變遷(三版) | 日本放送出版協會 |
| 1949 | " 24 | 國語學入門 | 吉川弘文堂 |

9. 服部四郎

- | | | | |
|------|-------|------------------------------------|---------------|
| 1935 | 昭和 10 | 朝鮮語動詞の使役形と受身可能形 | 藤岡博士功績紀念語學論文集 |
| 1967 | " 42 | 日本語はどこから來たか | ことばの宇宙 2(4) |
| 1954 | " 29 | 「言語年代學」即ち「語彙統計學」の方法について
日本祖語の年代 | 言語研究 26, 27 |
| 1959 | " 34 | 日本語の系統 | 岩波書店 |

10. 長田夏樹

- | | | | |
|------|-------|-----------------------|---------|
| 1960 | 昭和 35 | 日鮮共通基語音韻體系比定のための二三の假説 | 言語研究 37 |
|------|-------|-----------------------|---------|

- | | | | |
|------|-------|--|----------------|
| 1963 | 昭和 38 | 日鮮兩國語比較論に關する往復書簡 | J. Rahder 長田夏樹 |
| 1964 | " 39 | 日鮮兩國親族語彙對應不對應の問題
—アルタイ比較民族言語學の立場から— | 朝鮮學報 34 |
| 1979 | " 54 | 邪馬台國の言語 | 學生社 |

11. 岡倉由三郎

- | | | | |
|------|-------|---------------|-----------------|
| 1893 | 明治 26 | 本邦の數詞について | 哲學雜誌 8(81) |
| " | " " | 吏道諺文考 | 東洋學藝雜誌 143, 144 |
| " | " " | 字音考 | 東洋學藝雜誌 145 |
| 1897 | " 30 | 鳥古吐考(隨朝鮮語講究史) | 帝國文學 3(4) |
| 1900 | " 33 | 語尾の「入」に就いて | 言語學雜誌 1(1) |

12. 濱田敦

- | | | | |
|------|-------|--------------------------|---------------|
| 1946 | 昭和 21 | 古代日本語 | 大八洲出版社 |
| 1962 | " 37 | 外國資料 | 國語國文, 31(11) |
| 1965 | " 40 | 主格助詞が成立の過程 | 朝鮮學報 35 |
| " | " " | 「が」と「は」の一面. 一朝鮮資料を手がかりに— | 朝鮮學報 34(4, 5) |
| 1970 | " 45 | 朝鮮資料による日本語研究 | 岩波書店 |

13. 村山七郎

- | | | | |
|------|-------|---------------------|---------------|
| 1956 | 昭和 31 | 萬葉語の語源—日本語の系統論に連關して | 解釋と鑑賞 |
| 1962 | " 37 | 日本語及び高右麗の數詞 | 國語學 48 |
| 1973 | " 48 | 日本語の起源(大林太郎共著) | 弘文堂 |
| 1974 | " 49 | 日本語の語源 | 弘文堂 |
| " | " " | 日本語の研究方法 | 弘文堂 |
| 1975 | " 50 | 國語學の限界 | 弘文堂 |
| 1976 | " 51 | 日本語と南島語 | 歴史公論 |
| 1977 | " 52 | 日本語の成立(講座國語史 I) | 大修館 |
| " | " " | 言語學における比較の方法 | 月刊言語 1977年 2號 |
| " | " " | 西田龍雄氏にたずねる | 月刊言語 1977年 7號 |
| 1978 | " 53 | 日本語系統の探求 | 大修館 |
| 1979 | " 54 | 日本語の誕生 | 筑摩書房 |

14. 安藤正次

- | | | | |
|------|-------|-----------------|------|
| 19 | 大正 13 | 古代國語の研究(内外思想叢書) | 内外書房 |
| 1935 | 昭和 10 | 古典と古語 | 三省堂 |
| 1936 | " 11 | 國語史序説(國語史叢書) | 刀江書院 |

15. 石原六三

- | | | | |
|------|-------|--------------------------------------|---------------|
| 1950 | 昭和 25 | 古代日本語の格助詞と稱せられる「イ」と朝鮮語の格助詞「이(i)」に就いて | 天理大學報 2(1, 2) |
| 1952 | " 27 | 現代朝鮮語文法概説 | 天理大學朝鮮語學研究室 |

16. 新村出

- | | | | |
|------|------|---------------------------|-------------------|
| 1916 | 大正 5 | 國語及び朝鮮語の數詞 | 藝文誌 |
| 1927 | 昭和 2 | 國語及び朝鮮語の數詞について(東方言語史叢考所收) | 岩波書店 |
| 1930 | " 5 | 東西語源志 | 岡書院 |
| 1935 | " 10 | 國語系統論(國語科學講座) | 明治書院 |
| 1942 | " 17 | 南方と日本民族—特に言語上から— | 京都帝大新聞 1942. 3. 3 |
| 1971 | " 46 | 新村出全集 1, 2, 4 | 筑摩書房 |

17. 西田龍雄

- | | | | |
|------|-------|--------------------------|---------------------|
| 1976 | 昭和 51 | 日本語の系統を求めて—日本語とチベット・ビルマ語 | 日刊言語 1976 (6, 7, 8) |
| 1977 | " 52 | 日本語の系統を求めて(續) | 日刊言語 1977 (5) |
| " | " " | 續日本語の系統を求めて(上) | 日刊言語 1977(10) |
| " | " " | 日本語の系統について(京都教育大學公開講演) | 1977. 5. 27. |

18. 廣池千九郎

- | | | | |
|------|-------|---------|------------|
| 1905 | 明治 38 | てにをは廢止論 | 早稻田大學文科講義錄 |
| 1907 | 昭和 40 | てにをはの研究 | |

19. 間宮龍眞

- | | | | |
|------|-------|-------------|---------|
| 1910 | 明治 43 | 日韓字音比較研究 | 朝鮮 1(5) |
| " | " " | 日韓兩國語同系の一特點 | 朝鮮 1(6) |

20. 大江孝男

- | | | | |
|------|-------|--|---------|
| 1958 | 昭和 33 | 中期朝鮮語の ヌ/ㄷ 語幹に就いて | 朝鮮學報 12 |
| " | " " | On the Indicative Endings in Modern Korean | 言語研究 34 |

21. 大嶋正健

- | | | | |
|------|-------|-------------|-------------|
| 1898 | 明治 31 | 日本語と朝鮮語との關係 | 東京獨立雜誌 1(2) |
| " | " " | 漢字と假名 | 内外出版協會 |

22. 其他 I

- | | | | | |
|------|-------|-------|------------------|---------------|
| 1794 | 寛政 6 | 本居宣長 | 古事記傳 | 本居宣長全集 |
| 1850 | 嘉永 3 | 朝川鼎 | 善庵隨筆 | 日本隨筆大成 5 |
| 1866 | 慶應 2 | 黑河春村 | 碩鼠漫筆 | |
| 1889 | 明治 22 | 大矢透 | 日本語と朝鮮語との類似 | 東京人類學雜誌 四卷 37 |
| " | " " | 高橋二郎 | 朝鮮言語考 | 如蘭社話 13 |
| 1890 | " 23 | 三宅米吉 | 朝鮮語 | 東京人類學雜誌 五卷 53 |
| 1893 | " 26 | 赤峯瀨一郎 | 日韓言語近似 | 新文學 2 |
| 1898 | " 31 | 福田芳之助 | 日本の古語と朝鮮語との比較に就て | 國學院雜誌 5(4) |
| 1900 | " 33 | 鮎貝房之進 | 日韓語の異同 | 朝鮮月報 3 |
| 1906 | " 39 | 元田修三 | 日韓語比較研究小史 | 國學院雜誌 12(9) |

1909 ~10	明治 42-43	河合弘民	新羅と熊襲とは同一語に非ざるか	朝鮮 4(1-6)
1910	" 43	高橋亨	日韓兩語法の酷似せる一例	朝鮮 2(4)
1911	" 44	後藤朝太郎	朝鮮の字音と漢字の假名遣ひ	朝鮮 4(5)
1918	大正 7	清水元太郎	天産物の日韓名稱比較	藝文誌
1927	昭和 2	掘岡文吉	日本及汎太平洋民族の研究	富山房
1931	" 6	龜田次郎	明治時代日韓兩語比較論論文集	青丘學叢 6
1932	" 7	金澤博士還曆祝賀會	東洋語學の研究	三省堂
1934	" 9	西村眞太郎	日本語と朝鮮語は同じ語源	東京朝日新聞 9月 4日
1950	" 25	中村利一郎	日朝共通語彙の問題	短歌藝術 50.2.36
1951	" 26	橋本進吉	上代語の研究	岩波書店
1963	" 38	安田章	朝鮮資料の流水	國語國文 32(1)
1967	" 42	竹端瞭一	日本語の da と朝鮮語の ita	國文學研究 35
1969	" 44	五十嵐仁一編	上代假名遣辭典	小學館
1978	" 53	池上良二	アルタイ語系統論	岩波講座「日本語」12
"	" "	安本美典, 本多正久	日本語の誕生	大修館書店
1979	" 54	田中卓	古代天皇の秘密	太陽企劃出版

23. 其他Ⅱ

1699	元錄 12	契沖	圓珠庵雜記	日本隨筆全集 2, 契沖全集 8
1700	" 13	貝原益軒	日本釋名	
1713	正徳 3	寺島良安	和漢三才圖會	
1717	享保 2	新井白石	東雅	新井白石全集 14
"	" "	天野信景	鹽尻	日本隨筆大成三期 9, 10
1728	" 13	太宰春台	倭讀要領	
1729	" 14	雨森芳洲	全一道人	
1736	寛文 10 元文 1	伊藤東涯	三韓紀略	超述雜抄 44, 45
1738	元文 3	荻生徂來	南留別志	日本隨筆大成一期 2, 二期 8
1748	延享 5	谷川士清	日本書紀通證	
1759	寶曆 9	松岡玄達	結託錄	
1760	" 10	新井白石	同文通考	新井白石全集
1763	" 13	青木昆陽	草廬雜談	經濟纂要前集, 大日本思想全集 11
"	" "	青木昆陽	昆陽漫錄	日本隨筆大成 10
1781	天明 1	藤井貞幹	衡口發	
1785	" 5	伊勢貞丈	安齊隨筆	故實叢書 8, 9(明治圖書)
1786	" 6	林子平	三國通鑑圖說	
1794	寛政 6	小田幾五郎	象胥紀聞	
1812	文化 9	本居宣長	玉勝間	本居宣長全集 8
1813	" 10	岩瀬京傳	骨董集	日本隨筆大成一期 8
1815	" 12	太田全齊	漢吳音圖	東京六合館(全齊讀例)
"	" "	太田南畝	一話一言	日本隨筆大成 別卷 20

1819	文政 2	栗原信充	柳菴隨筆	日本隨筆全集 7
1822	" 2	平田篤胤	神字日文傳	
1826	" 5	松浦冠山	甲子夜話續篇	日本隨筆大成 二期 9
"	" 9	高田與清	松屋隨筆	日本隨筆大成 二期 8
1827	" 10	富士谷御權	北邊隨筆	日本隨筆大成 一 8
1828	" 11	大槻玄幹	西音發微	
1830	" 13	伴信友	中外經緯傳・比古婆衣	日本隨筆大成 二 14
"	" "	谷川土清	倭訓栞	名著刊行會(上・中・下)
"	" "	喜多村信節	嬉遊笑覽	日本隨筆大成 二別卷(上・下)
1841	天保 12	小田管作	象胥紀聞拾遺	外國地誌 卷三(教大)
1849	嘉永 2	太田全齊	俚言集覽「いーか」から「おーな」まで	名著刊行會
1850	" 3	伴信友	神代字辨	
1853	" 6	齊藤彦麿	傍廂	日本隨筆大成 三 1
1855	安政 2	石橋眞國	漢字諺文對照圖・諺文音	京都大 寫本
1862	文久 2	黑河春村	音韻考證	吉川弘文館
1888	明治 21	落合直澄	日本古代文字考	
1893	" 26	國分國夫	日韓通話	富山房書店
1899	" 32	福田芳之助	韓史に於ける神功皇后征韓年代表	國學院雜誌 5
1900	" 33	丸山通一	日本語化したる漢語	言語學雜誌 1, 3
1903	" 36	幣原坦	羅馬字索引朝鮮地名字彙略評	史學雜誌 14(9)
1904	" 37	元田修三	金澤博士の寧樂考を讀みて	史學雜誌 15(1)
"	" "	幣原坦	朝鮮地名字彙略評に答ふを讀む	史學雜誌 15(3)
"	" "	幣原坦	「校訂交隣須知」の新刊	史學雜誌 15(12)
1905	" 38	松村任三	日本植物名の語源	日本園藝雜誌 17(11)
"	" "	松村任三	言葉のかず々	東洋學藝雜誌 288-329
1908	" 41	高橋龍雄	諺文について	國學院雜誌 14(1)
"	" "	佐藤誠實	韓國名義考・韓・任那・新羅	國學院雜誌 14(1)
"	" "	藤岡勝二	日本語の位置	國學院雜誌 14(1)
"	" "	高桑駒吉	韓國國名の西傳について	國學院雜誌 14(1)
1909 ~1910	" 42-43	坪井九馬三	朝鮮古地名の二三に就いて	史學雜誌 20(1, 2) 21(3)
1909	" 42	藥師寺知囃	文法註釋韓語研究法	半山書屋藏版
1911	" 44	林泰輔	朝鮮文字の製作について	文學界 1(1)
1931	昭和 6	吉澤義則	國語史概説(1946 再 雄山閣)	立命館大學出版部
1933	" 8	安田喜代門	中古の國語(國語科學講座)	明治書院
1934	" 9	土井忠生	近古の國語(國語科學講座)	明治書院
1935	" 10	大曲美太郎	朝鮮語學所と交隣須知の刊行	ドルメン 4(3)
1939	" 14	今泉忠義	國語發達史大要	白帝社
"	" "	泉井久之助	古島に残る古典的日本語	日本言語學會「言語の研究」
1941	" 16	佐久間鼎	日本語の特質	育英書院
1942	" 17	湯澤幸吉郎	國語史概説	八木書店
1944	" 19	正宗敦夫	萬葉集總索引單語篇	伊藤書店

1950	昭和 25	佐伯梅友	奈良時代の國語(言語双書)	三省堂
"	" "	齊藤辰雄	朝鮮語文法	日本文化 28, 29
1951	" 26	國語學會	國語の歴史(改訂版)	刀江書院
1953	" 28	櫻井芳郎	高句麗の言語について	東京學藝大學研究報告
1954	" 29	中田祝夫	古點本の國語學的研究(總論篇)	講談社
1955	" 30	森田武	「捷解新語」成立の時期について	國語と國文學 24(3)
1956	" 31	青山秀夫	現代朝鮮語における母音調和と中性母音	朝鮮學報 9
"	" "	高橋享	濟州島名考	朝鮮學報 9
1959	" 34	土井洋一外	倭語類解考	國語國文 28(9)
1963	" 38	龜井孝外二人	日本語の歴史 1, 民族のことはの誕生	平凡社
1969	" 44	福島邦道	新出の隣語大方おさび交隣須知について	國語國文 38(12)
1974	" 49	森岡健二外	言語と人間	東海大學出版部
1975	" 50	古田東朔外	國語學史	東京大學出版部
1973	" 48	池田次郎外編	論集 日本文化の起源 5 日本人種論・言語學	平凡社
		水野祐	日本古代の國家形成	講談社 現代著書

24. 其他Ⅲ(補遺 및 本稿參考文獻一部)

1967 ¹ ~1978 ¹²	日本古典文學大系	日本書紀上	岩波書店
	日本古典文學大系	日本書紀下	岩波書店
1956~1962	日本古典文學大系	萬葉集 1, 2, 3, 4	岩波書店
1968	日本古典文學大系	古代歌謠集	岩波書店
	日本古典文學大系	古事記・祝詞	岩波書店
1971~1975	日本古典文學全集	萬葉集 1, 2, 3, 4	小學館
1973	日本古典文學全集	古事記・上代歌謠	小學館

Ⅸ. 日本書紀

國內에서는 三國史記, 日本에서는 日本書紀, 이들은 우리 國語의 古代 資料를 찾을수 있는 貴重한 文獻들이다. 日本書紀는 日本의 建國神話와 關聯된 歷史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記錄 중에 韓語가 섞여 있음은 실로 注目할만한 일이다. 特히 그 本文에는 韓半島의 人名 地名 國名이 있고 一般 語彙項目도 섞여 있으며 本文 끝에 假名로 적은, 韓語라고 간주되는 記錄들이 特히 注目을 끈다. 이 資料의 重要性에 대하여 白鳥庫吉(1977)은

아직 이들 말에 대해서, 精細한 解釋을 한 사람이 없다. 그러나 거기 실린 韓語는, 實로 今日 傳하는 唯一의 古言으로서, 此書를 두고 決코 다른 데서 求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 數語는 저 나라 古語의 遺物이라는 것만 가지고도 充分히 貴重히 여길만하다. 況次 만일 此言으로 하여금 日本 蒙古 滿洲 土耳其 諸族의 言語와 語脈의 連關됨을 發見한다면 이들 數語의 價値는 果然 얼마만큼이나 큰가. (以下略)

라고 하였다. 이러한, 많지는 않지만 貴重한 資料를 調査하고 研究하는 것은 그 속에 있는 韓語나 韓日語의 相互關係를 찾아 研究하는 것 이외에도 彼我が 다 같이 試圖한 漢字에 의한 自國語의 表記에 관한 여러 가지 問題를 研究하는 데도 큰 貢獻을 할 것이다. 韓日兩國의 關係 特히 建國에 있어서의 關聯의 문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런 意味에서 日本書紀에 관한 몇 가지를 대강 살펴 보기로 한다.

1. 名稱에 대하여⁽³⁾

日本書紀라고 通稱되는 이 文獻은 그 本來의 名稱이 ‘日本紀’라고 하는 見解가 簇出되고 있다. 이런, 名稱에 관한 論議는 옛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거니와 아직도 決定的인 說을 얻지 못하고 있다.

‘日本書紀’가 아니라 ‘日本紀’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主張하는 사람들 意見은 대강 다음과 같다.

① 이 文獻의 奏上을 記錄한 續日本紀의 養老四(720)年條에 “修日本紀”라 되어 있다. (伴信友 日本書紀考”(比古婆衣 卷一)

② 續日本紀 以降의 國史名이 모두 ‘日本紀’를 취하고 ‘日本書紀’를 취하지 않았다. (同上)⁽⁴⁾

③ ‘日本紀’보다 앞서 ‘日本書’라는 것이 있었을 것이며 ‘日本書’의 一部인 帝王本紀가 帝紀로서 행세했다고 보고, ‘日本書’라는 觀念이 있고 ‘日本書紀’가 나올 것이므로 本來의 名稱은 當然히 ‘日本紀’이어야 한다(折口信夫 日本書紀と日本紀と”, ‘史學’五の二全集一)

④ 書와 紀는 直結되지 않는 文字이며 中國에 書紀라는 名稱의 史書는 없다. 그래서 이 文獻은 本來 ‘日本書’이었으나 事實은 ‘紀’만이 있었으며 志’나 ‘列傳’이 없어서 ‘日本書’라는 題目아래 小文字로 ‘紀’를 적어 ‘日本書’의 ‘紀’임을 表示했을 것이다. (神田喜一郎, 日本古典文學大系, “日本書紀”下の月報 昭和 40年 7月)

⑤ 그런데 現實的으로는 ‘日本書紀’와 같이 ‘書’字가 쓰인 例가 있어서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서

⑥ 弘仁年中부터 文人들이 ‘日本紀’에 ‘書’字를 더하여 ‘日本書紀’라고 稱한 것이 그대로 書名이 되었다. (伴信友)

⑦ ‘日本書紀’라는 이름은 史學知識이, 自由로운 流動性을 잃기 시작하면서 비롯된 듯하다. 弘仁年間の 博士들의 一知半解의 銜學的인 데서 온 것이다(折口信夫)

⑧ ‘日本書’ 밑에 小文字로 ‘紀’라 적은 것은 後世에 傳寫하면서 ‘書’와 ‘紀’를 붙여 적

(3) 日本書紀의 여러가지 問題에 관한 考察은 日本古典文學大系, 日本書紀上の 解説을 中心으로 하였다.

(4) 書, 紀의 中國에 있어서의 用法은 달랐다. 書는 紀傳體의 曆史書에 쓰였으며 紀는 編年體의 曆史書에 쓰였다. 漢書, 後漢書, 晉書는 紀傳體이며 漢紀 後漢紀 등은 編年體다.

어 ‘日本書紀’가 되었다. 그리고 續日本紀가 만들어진 時代에는 그 書名의 由來를 잊었으나 日本書紀라는 書名이 이상한 것을 깨닫고 그 體裁나 內容에 걸맞도록 ‘日本紀’라 했다. (神田喜一郎)

小島憲之(日本古典文學大系, 日本書紀上, 卷頭解説)는 伴信友의 意見에 대하여

이 說 중, 續日本紀 以下の 國史名을 根據로 하여 日本紀가 本來의 名稱이었다고 推定한 것은 가장 說得力이 있는 것이지만, 其他의 點은 不充分한 感이 있다. 弘仁 以前에도 日本書紀라 稱한 史料은 公式令集解 所引 古記, 萬葉集 左注, 日本後紀大同元(806)年 七月條, 高野雜筆集 등 꽤 있다. 설령 이들을 잘못 傳寫한 것으로 본다 해도 弘仁 頃의 文人들이 왜 ‘書字’를 더한 것인지 납득할 수 있는 說明이 아쉽다.

書도 紀도 中國에서는 古來 史書의 題名에 使用한 文字로 書는 紀傳體의 歷史를 紀는 編年體의 歷史를 指示하는 例이다. ……日本書紀는 編年體이므로, 紀字를 使用한 것은 이 約束에 符合된다. 漢紀 後漢紀가 모두 三十卷이며 書紀의 三十卷과 一致된다는 것을 보면 적어도 名稱에는 이러한 것을 參考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싶다.

고 하여 自身の 意見을 開陳하고 또 折口信夫의 意見에 대해서는

書와 紀와의 相違點을 確實히 把握한 獨創의인 見解지만 七世紀頃의 우리 知識人 사이에 日本書라는 雄대한 構想이 세워지고 實行되었는지는 매우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日本紀가 本名이고, 日本書紀가 博士들의 一知半解의 術學的인 데서 온 이름이라는 것은 信友가 다 말하지 못한 것을 說明한 것으로 意義가 크다.

고 보고 神田喜一郎의 意見에 대해서는

이 說은 書籍에 精通한 博士가 아니어서는 할 수 없는 具體的인 說明이지만 “續日本紀” 撰進의 延曆 頃까지에 題名의 ‘書’大字와 ‘紀’小字의 區別이 없어질 정도로 자주 書寫되었는지 多少 의심스럽다. 그리고 日本紀가 本來의 名稱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信友 以來의 舊說과는 다른 結論을 보인 것으로 注目된다.

고 하였다.

實際로 ‘日本書紀’와 ‘日本紀’는 오래 전부터 混同되어 온 것 같다. 延喜・天慶 두 번의 竟宴歌를 모아 각각 漢文으로 序를 싣고 있는데 그 延喜의 題詞에는

日本紀竟宴各分史得神日本磐余彥天皇拜序

라고 한 것과 같이 ‘日本紀’로 되어 있는데 그 序의 本文에는

日本書紀者一品舍人親王從四位下太朝臣安滿等奉勅所撰也

라 하여 日本書紀로 적었고 天慶題詞에도

日本紀竟宴各分史得王仁一首拜序

와 같이 ‘日本紀’인데 序에는

元正天皇御宇之時勅一品舍人親王從四位下太朝臣安麻呂等俾撰日本書紀

와 같이 ‘日本書紀’로 적었다. 이렇게 한 冊의 題詞과 序에서 버젓이 각각 달리 記錄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 두 이름이 모두 公式名稱으로 쓰인 것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紀’나 ‘書紀’나 하는 것을 따지지 않고 混同 使用한 듯하다. 또 小島憲之에 의하면 寫本은 대개 卷頭나 卷尾에서 ‘日本書紀’라 題하고 ‘日本紀’라고 적지 않았으나 다른 書籍에 이것을 引用했을 때는 “日本紀云”으로 한 것이 많다고 한다. 現在 通用되고 있는 名稱은 ‘日本紀’가 아니고 ‘日本書紀’다.

2. 編修過程과 完成時期

‘續日本紀’ 養老四(720)年 五月 癸酉條에

先是一品舍人親王奉勅修日本紀，至是功成奏上，紀州卷系圖一卷。

이라 한 것으로 보아 그 完成의 時期는 分明하다. 다만 이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編修되었느냐에 대해서는 史料 不足으로 的確한 것을 알기 어렵다.

그런데 同 書紀 天武天皇 十年 三月丙戌條에 의해서

天皇御于大極殿 以詔川島皇子・忍壁皇子・廣瀨王・竹田王・桑田王・三野王・大錦下上毛野君三千・小錦中忌部連首・小錦下阿曇連稻敷・難波連大形・大山上中臣連大島・大山下平群臣子首，令記定帝紀及上古諸事。大島・子首，親執筆以錄焉(文字下部的・印筆者)

令(天皇)에 의해서 帝紀와 上古諸事の 記定이 시작된을 짐작할 수 있다.

日本書紀가 完成되기 八年 앞서서 和銅五(722)년에 된 古事記 序文에도

於時天皇詔之 朕聞 諸家之所賣 帝紀及 本辭，既違正實，多加虛僞。當今之時不改其失，未經幾年其旨欲滅，斯乃，邦家之經緯，王代之鴻基焉。故惟 撰錄帝紀，討覈舊辭，削僞定實，欲流後葉。時有舍人，姓稗田，名阿禮，年是廿八。爲人聰明，度目誦口，拂耳勤心，即，勅語阿禮 令誦習 帝皇日繼及先代舊辭。然，運移世異，未行其事矣。(○印筆者)

小島憲之는 ○印의 帝紀，本辭와 帝皇日繼，先代舊辭를 같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것은 日本書紀 天武 十年 條의 帝紀 및 上古諸事와도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事實에 대해서 몇가지 意見이 엇갈리고 있는듯하다.

① 天武天皇이 川島皇子 以不 五二人의 皇族 貴族들을 大極殿에 모아 놓고 記定을 命한 것과 稗田阿禮에게 命하여 帝皇日繼와 先代舊辭를 誦習시킨 것은 같은 것이다.

② 天武十年의 帝紀 및 上古諸事の 記定은 混亂된 氏姓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으나 諸氏의 利害關係가 얽혀 해결되지 않아 天皇이 다시 阿禮와 함께 그 일을 했다. 그 결과 天

武十三年 八色姓의 制定을 보았다. 古事記는 뒤에 阿禮가 誦習한 것은 적은 것이므로 天武十年의 記定事業은 古事記 撰錄의 기초가 되었으며 日本書紀와는 無關하다. 和銅七(714)年 紀清人・三宅藤麻呂에 命하여 國史를 撰한 것이 續日本紀에 보이므로 日本書紀는 이 때에 編修에 着手한 것이다(平田俊春, 日本古典の 成立の研究)

③ 阿禮의 ‘誦習帝皇日繼及先代舊辭’가 먼저이고, 天武十年의 記定이 뒤라는 것이다. 天皇은 애초에 阿禮를 助手로 帝紀舊辭의 削偽定實을 행했으나 그것이 어려워 川島皇子등 皇族貴族을 모아 帝紀舊辭의 記定을 시작했다 이것이, 養老四(720)年에 日本書紀로서 結實된 것이다. 그러므로 日本書紀 編修의 시작은 天武十年이다.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帝紀舊辭를 올바르게 記定하려는 것으로 資料 整備의 事業이었으며 이것이 日本書紀 資料의 核心이 되었다.

이와같이 意見이 對立되고 있어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을 말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러한 문제의 追究은 그럴만한 切實한 必要性도 없고 또 여기서는 意味 있는 일이 아니기도 하다.

3. 異 本

大野 晉(日本古典文學大系, 日本書紀, 上, 解説)에 의하면 지금까지 알려진 日本書紀의 古字本은 數十種이 되며 이것을 두 部類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이른바 卜部家本 및 그 系統의 여러 異本이며, 다른 하나는 卜部家本에 속하지 않는 것들이다. 氏는 이것을 古本이라 한다. 前者 即 卜部家本系의 異本중에는 全三十卷이 있는 것도 있고 一般的으로 殘存하는 卷數가 많으나 古本에는 三十卷을 갖춘 것은 없으며 殘存하는 卷數도 一卷 及至 二卷씩으로 적은 것이 많다. 이들 異本을 簡單히 紹介한다.

A. 卜部家本 및 그 系統의 異本

鎌倉時代 卜部家에 傳해 온 家本이다. 이것은 室町時代 大永五(1525)年에 亂中에 紛失되었으나 그 前인 永正十(1513)年부터 十一年에 걸쳐서 三條西實隆가 書寫한 것이 있고 그 三條西本을 書寫한 것이 現在 內閣文庫 所藏의 日本書紀 十冊이다. 書寫는 慶長 年間이라 추측이 되고 이것이 慶長十五(1610)年의 古活字本의 근본이며 그 후 江戸時代에 刊行된 板本の 기초가 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 卜部家本을 鎌倉時代에 書寫한 것이 現存한다. 卜部兼方本 神代紀上下 二卷, 卜部兼夏本 神代紀 上下 二卷, 水戶本 神代紀 上下 二卷이다.

① 卜部兼方本 神代紀 二卷. 一名 弘安本(弘安九(1286)年의 裏書가 있음). (大橋寬治所藏). 語彙語法에서 꽤 옛 모습을 보인다.

② 卜部兼夏本 神代紀 二卷. 天理圖書館所藏. 乾元二(1303) 卜部兼夏의 筆寫. 一名 乾元本

③ 水戶本 神代紀 二卷. 彰考館所藏 嘉曆三(1328)年 沙門劍阿의 傳授로 曇春이 鎌倉에서

筆寫. 一名 嘉曆本. 鎌倉本 彰考館本. 兼方本과 아주 가깝다.

④ 卜部兼右本 二十八卷. 天理圖書館所藏. 享祿二(1529)年 三條西實隆本을 卜部兼右가 筆寫. 神代紀 二卷 缺損. 28卷만 現存.

⑤ 內閣文庫本 十冊. 內閣文庫所藏. 一名 永正本. 三十卷 全部 現存. 慶長年間の 書寫.

⑥ 卜部家本系の 諸異本.

神代紀를 傳하는 것. 醍醐三室院本(神代上), 向神社本(神代下), 三島神社本(神代 上下, 神武), 桃木本(神代下), 御巫本(神代上), 建仁寺兩足院本(神代上下), 一峯本(神代上下, 神武). 이들은 대강 室町時代の 書寫이고 그 本文은 卜部家本の 흐름을 띠. 神代卷 以外の 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熱田本, 北野本, 伊勢本등이 있다.

⑦ 熱田本: 熱田神宮所藏. 卷1-15. 中 卷十一 缺損.

⑧ 北野本: 北野神社所藏

⑨ 伊勢本: 穗久邇文庫所藏. 卷 3-29. 이 中 16, 19 二卷 缺損. 25卷 現存. 內閣文庫所藏. 無窮會所藏 其他

⑩ 板本 其他. 慶長勅板本 神代卷, 慶長十五年古活字板. 이것을 覆刻한 整板本, 寬永九年整板本등

B. 古 本

① 佐之本信綱 舊藏. 卷一 神代 上 斷簡. 本文 겨우 十行. 全文 237字. 奈良朝 末期 또는 平安朝 初期 書寫인 듯. 大正 14年刊의 秘籍大觀 所收

② 猪熊本 卷一 神代 上 斷簡. 佐佐木信綱本과 同筆. 本文三行. 全文五十九字. 古典保存會叢書 所收.

③ 四天王寺本 卷一 神代 上 斷簡. 本文 二葉 四行. 六十二字와 二行 五十五字. 國史大系本 卷頭に 寫眞.

④ 田中本 卷十. 秘籍大觀 所收.

⑤ 岩崎本 卷二十二, 二十四, 秘籍大觀 所收.

⑥ 前田本 卷十一, 十四, 十七, 二十, 秘籍大觀 所收.

⑦ 宮內廳本 卷十, 十二, 十三, 十四, 十五, 十六, 十七, 二十一, 二十二, 二十三, 二十四, 及卷二 秘籍大觀 所收.

⑧ 北野本(第一類) 卷 二十二, 二十三, 二十四, 二十五, 二十六, 二十七.

⑨ 鴨脚本 神代紀. 下. 古典保存會叢書 所收.

⑩ 丹鶴本 神代紀. 丹鶴叢書 所收.

4. 研究概觀

日本書紀는 古典籍으로서 또는 古代日本 研究의 資料로서 學問的 研究의 對象이었으며

思想的인 面에서 여러가지로 利用되어 왔다. 이제 그 대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古代에 있어서의 訓詁의 研究

㉔ 養老五(721)年: 宮廷에서 講義

㉕ 弘仁三(812), 承和十(843), 元慶二(878), 延喜四(904), 承平六(936), 康保二(965): 平安朝에서 講書

㉖ 元慶 以後에는 童宴 隨伴. 그때 읊어진 和歌 남김

㉗ 日本書紀私記, 元慶私記 등. 特히 元慶私記의 編者라고 생각되는 矢田部名實은 다른 記錄과 對照해서 日本書紀의 歷史的記錄으로서의 漏落 誤謬를 지적하고 韓語에 대해서도 그 讀法이나 說明에 있어 後世가 아니면 도저히 解讀할 수 없었을 畧을 보이고 있다.

㉘ 이러한 古代 講書의 成果를 集大成하여 ‘釋日本紀’ ‘私記’集成, ‘述義’秘訓 등으로 分類 整理되었다.

㉙ 古事記 序文에 “邦家之經緯 王代之鴻基焉. 故惟. 撰錄帝紀 討覆舊辭 創僞定實...”云云한 것 등에서 알 수 있듯이 記紀의 編纂이 律令機構 確立期에 있어서의 天皇制國家 支配者들의 政治的 要求를 根本的인 動機로 하고 있다.

② 中世 神道家의 利用.

鎌倉時代 以後 日本書紀는 오로지 神道家에 의해서 敎義의 源泉인 神典으로 尊重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사정때문에 一般的인 歷史的 記錄은 돌아보지 않았고 神代卷에만 關心이 集中되었다.

③ 近世의 學問的 研究

儒學 中心의 近世 日本의 學問의 興隆은 古典에 대한 學問的 研究를 促進했다. 이 時期의 日本書紀의 研究는 註釋書의 著作과 이른바 高等批判的 見解의 出現이다.

A. 註釋書

註釋書로는 谷川士清의 日本書紀通證(延京四(1747)年)과, 河村秀根·益根 父子의 書紀集解(序文에 의하면 天明五(1785)年)가 近世 書紀 研究史 上的 二大變峯이라 일컬어지고 있다. 其他 岡態臣의 日本書紀私傳(弘化元(1844)), 敷田年治의 標註日本紀(明治 二十四(1891), 飯田武鄉의 日本書紀通釋(明治 三十五(1902), 그리고 神代紀만을 對象으로 한 青柳種信의 日本書紀講說, 鈴木重胤의 日本紀傳 伴信友의 ‘長等の山風’의 附錄—“壬申紀證注” 등이 있으며, 日本書紀 所載 歌謠만을 註解한 荒木田久老의 日本書紀歌解槻の落葉(寛政十一(1799))등이 있다.

B. 高等批判的 研究

近世 學問의 實證主義的 思考는 中世的인 神祕主義를 벗어나서 合理主義의 傾向을 보였다. 神典으로서, 神祕的인 것으로만 여겼던 記紀에 대해서 이른바 高等批判的 觀點을 가지게 되었다. 天皇은 主權者의 地位를 잃고, 그래서 皇室의 起源을 內容으로 했기 때문에 記紀의 說話를 神聖不可侵의 것으로 하는 政治的 必要가 없어졌다. 그러므로 記紀를 合理的인 認

識의 對象으로 보는 態度가 形成되었다. 新井白石의 古史通(享保元年 1716), 吉見幸和의 對問筆記(寶曆二年 1752), 神代尙綱(同十年 1760), 山片蟠桃의 夢の代(享和二年 1802), 上田秋成의 膽大小心錄(文化五年 1808), 橘守部 稜威道別(天保十三年 1842) 등이 있으며 특히 藤田貞幹은 衝口發(天明元年 1781)에서 神武天皇 元年 辛酉에서 六百年을 빼야 外國의 年紀와 符合된다고 主張했고 伴信友도 日本紀年曆考(比古婆衣所收)에서 日本書紀의 紀年이 辛酉革命의 說에 의해서 僞作된 것을 論證하기에 이르렀다.

4. 天皇主權體制的 成立과 記紀神話의 政治的 役割

日本書紀는 天皇神聖不可侵의 思想을 뒷받침하는 根據로 利用되었다. 日本書紀 古事紀가 近世 封建主義社會에서 比較的 自由롭게 學問的 批判의 對象이 되었음은 앞에서 言及한 바 있거니와 이것이 王政復古와 明治 憲法⁽⁵⁾의 制定으로 確立된 天皇主權體制下에서 主權者로서 的天皇은 神聖해야 하며 그 地位의 起源을 權威있게 하기 위한 文獻的 典據로서 絶對적인 政治的 役割을 했다.

5. 明治~敗戰 間の 學問的 研究

A. 高等批評的研究

科學的 精神과 理性的 自覺의 深化는 江戸時代に 著된 記紀에 대한 高等批評的 研究는 一部 學者들 사이에서 長足の 進歩를 이루었다. 今日 學界의 共同遺産으로서 現代 研究者의 共通基盤이 된 業績을 남겼다. 특히 津田左右吉의 業績을 들 수 있다. 記紀 所傳에 대한 徹底한 科學的 批判을 해서 劃期的인 業績을 남겼다. 神代史の新しい研究(大正二年 1913), 古事紀及び日本書紀の新研究(大正十三年 “古事紀及日本書紀の研究”라고 改題한 改訂版 發行), 神代史の研究(大正十三年), 上代日本の社會及び思想(昭和八年 1933) 등이 그것이다. 이들 文獻이 皇室의 日本統治를 正當化하기 위한 政治的 目的으로 僞作되었다는 것, 相當한 部分이 客觀的 史實의 記錄이 아니라는 것, 信憑할 수 없는 部分이 꽤 있다는 것등을 主張한 이들 一連의 著作의 內容은 지금은 거의 古代史 研究者의 常識이 된 것이지만 當時로서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昭和十五(1940)年 神代史の研究등의 著作이 販賣禁止 處分을 받았고 津田 自身은 皇室의 尊嚴을 冒瀆했다는 이유로 有罪判決을 받았다.

津田와 同學인 池內宏는 大正 八年 以來 東京帝國大學 講義에서 韓國史와의 對應의 角度에서 日本書紀의 記事와 客觀的 史實과의 關係에 批判的 研究를 進行시켰고 昭和二十二(1947)年 “日本上代史の研究—日鮮の交渉と日本書紀”라는 標題로 刊行되었다. 또 福田敏男의 飛鳥寺の創立に關する研究(昭和 9年 1934 “史學雜誌”十月號所載)등도 日本書紀의 批判的 研

(5) 大日本憲法 第一條 “大日本帝國ハ萬世一系ノ天皇之ヲ統治ス” 第三條 “天皇ハ神聖ニシテ侵スヘカラス

究業績이다.

B. 神話學 民俗學등의 側面으로부터의 研究

明治時代에는, 記紀 所傳에 대한 正面으로부터의 批判이, 江戸時代보다 더 어려웠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考古學 神話學 民俗學 등의 成果는 記紀 所傳의 研究에도 새로운 局面을 열어 주었다. 高木敏雄의 日本神話傳説の研究(大正十四年 1925), 松本信廣의 日本神話の研究(昭和 六年 1931), 그리고 柳田國男, 折口信夫 등의 많은 研究는 戰後 記紀 研究의 飛躍的 展開에 不可缺의 것이다.

C. 本文研究와 註釋

江戸時代의 註釋을 舊派의 註釋이라 한다면 이 時代의 註釋은 近代科學의 成果를 基盤으로 한 新派의 註釋이라 하겠다. 相磯貞三의 記紀歌謠新釋(昭和十四年 1939)등이 있다.

특히 本稿와 關係 있는 것으로는 白鳥庫吉의 『日本書紀』に見えにる韓語の研究(明治 30年 4, 6, 7月 '史學雜誌' 第8編 4, 6, 7號)를 들 수 있다 또 同氏의 再び朝鮮の古語に就て(明治 34年 1月 言語學雜誌 第2卷 第1號)에도 日本書紀의 資料가 다루어지고 있다.

6. 記紀의 政治的 權威의 消滅과 學問的 研究

戰後 天皇主權國家에서 國民主權國家로 바뀐 것을 계기로 記紀의 政治적인 임무는 면제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古代의 文獻으로서 科學的 研究를 하는 데 조금도 구애를 받지 않게 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할 것은 現役 研究者 중에도 舊態依然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과연 없겠느냐 하는 것이다. 특히 韓半島와의 關係에서 그들이 얼마나 허심탄회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이 시기의 日本書紀의 연구는 대강 다음과 같은 側面에서 행해졌다. 本稿와 直接關係 있는 것이 아니므로 具體的인 例는 생략한다.

- ① 津田左右吉의 立場을 積極 活用하고 그 不足한 點을 補完
- ② 記紀神話의 比較神話學的・民族學的・民俗學的 研究
- ③ 日本書紀와 漢籍・佛典과의 關係에 대한 出典 研究
- ④ 日本書紀의 編纂過程 研究의 精密化
- ⑤ 書紀의 言語(日本語)學的 研究
- ⑥ 本文의 研究

X. '日本書紀의 韓語' 研究

日本の 建國이 韓半島와 密接히 關聯되어 있음을 보이는 日本書紀 속에 韓語가 相當數들이 있음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그 중에는 日本語식으로 읽는 것도 있으나 韓語를 그대로 읽는 것이 있어 注目을 끈다. 또 그 중에는 現代 韓國語로 짐작이 가는 것도 있으며,

지금은 全然 그 자취를 찾을 길이 없어 完全히 消滅된 것으로 說明하고 있는 것도 있다.

이런 말, 日本人들에 의해서 韓語라고 看做되는 말에 관한 日本人들의 研究는, 틀림없이 그 正體를 把握한 것도 있고, 분명하게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으며, 옳은지 그른지 아직 알 길이 없는 것도 있다.

白鳥庫吉의 日本書紀に見えたる韓語の解釋(明治 30)에서 韓語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그 보기로 들어 보겠다.

韓 語	意 味	日本書紀記錄	備 考
曾 尸 茂 梨 (ソシモリ)	曾:牛頭? 尸:天爾遠波 茂梨:城邑	是時素戔鳴尊帥其子五十 猛神, 降到於新羅國, 居 曾尸茂梨之處(一神代上)	茂梨:城, 邑 ◎三國史記 新羅紀:弗·伐·火 百濟紀:夫里 ◎好太王碑文 : 鴨盧 ◎梁書 新羅傳 : 評, 牟羅 百濟傳 : 麻, 拔 ◎魏志 後漢書韓傳: 卑離 ◎日本書紀 다른곳: 牟羅·方 ◎建內繁繼, 八坂社舊記集錄, 上卷 ソシ ソイ *韓語牛を소と呼 又約めて쇠とも モリ ソシモリ 云 頭をモリと云소모리는 韓國樂浪にあ る地名にて, (中略) 其山より出たる地の 名なり. *曾尸茂梨は即牛頭の韓語にして欽明天皇十 三年の記に新羅の牛頭方と見え, 『東國通 鑑』にも樂浪牛頭山城云云...
那禮(ナレ), 那利(ナリ)	河. 나리.	◎非東曰更出西, 且除阿利 那禮 河返以之逆流及河 石昇爲星辰, 而殊闕春秋 之朝, 怠廢梳櫛之貢, 天 神地祇共討焉(九神功) ◎春三月天皇聞百濟爲高麗 所破, 以久麻那利賜汶洲 王(一四 雄略 二一)	◎日本書紀通證 *松下氏曰 鴨綠江在三韓, 天下三大河之其 一也, 阿利那禮河是耶, 阿鴨也, 利綠也, 二字略音, 那禮三韓河之俗語, 即江也(卷 一四) *雄略紀所謂久麻那利是也, 那禮川之韓語, 神功紀阿利那禮河 今朝鮮語熊川云々, 川云 加伊, 又茶盤有名熊川者, 訓古毛賀伊, 蓋 出于此地者也, (卷二二 熊川解)
山(ムレ)	山.	◎登辟山盟之, 復登古沙山 (九神功四九) ◎築帶山城(シトロムレサ シ) 距守東道(一五顯宗 三) ◎其他	

* 지금까지의 參考文獻은 따로 소개하지 않는다. 本稿에서 소개된 文獻資料들을 참고하던 될 것이다

韓 語	意 味	日本書紀記錄	備 考
		久禮山, 荷山(欽明五) 函山城 (欽明一五) 居曾山 (二〇) 怒受利之山 任叙利山(齊明六)	
主島(ニリムセマ)	主(ニリム): 님 島(セマ): 섬	<p>◎六月丙戌朔, 孕婦果如 キシ 加須利君 言, 於築紫各 羅嶋產兒, 仍名此兒曰嶋 キシ 君於是軍君卽以一船送嶋 君於國, 是爲武寧王, 百 ニリムセマ 濟人呼此嶋曰主嶋也。(一 四雄略五)</p> <p>◎使於百濟, 召其國 主・ (敏達一二)</p> <p>◎臣等歸蕃, 先導國主(崇 峻即位)</p> <p>ニリムノオモ ◎國主母斃(皇極元年)</p> <p>◎王子豐璋將爲國主(齊明 六)</p>	<p>◎三國史記卷一 初南解弊, 儒理當立, 以大輔脫解素有德望, 推讓其位, 脫解曰, 神器大寶非庸人所堪, 吾聞聖智人 多齒, 試以餅噬之, 儒理齒理 多, 乃與左右 奉立之, 號尼師今, 古傳如 比, 金大問則云, 尼師今方言也, 謂齒理。</p>
俱・知(クチ)	鷹.	<p>◎依網屯倉阿弭古捕異鳥, 獻於天皇曰, 臣每張網捕 鳥, 未曾得是鳥之類, 故奇 而獻之, 天皇召酒君, 示鳥 曰 是何鳥矣, 酒君對言, 此鳥類多在百濟, 得馬川 而能從人, 亦捷飛之掠諸 鳥, 百濟俗號此鳥曰 俱知 是今時鷹也 乃授酒君令 養馴, 未幾時而得馴, 酒 君則以韋縵著其足, 以小 鈴著其尾, 居腕上獻于天 皇, 是曰幸百舌鳥野而遊 獵, 時雌雉多起, 乃放鷹 令捕 忽獲數十雉, 是日 甫定鷹甘部故時人號其養 鷹之處, 曰鷹甘邑也(一 一仁德四三)</p>	<p>◎日本書紀通證 倭名鈔古語云俱知, 兩字急讀屈, 見私記, 今按今朝鮮語云末伊, 天慶六年竟宴歌, 安 美乃字知丹加加利波志女之久知與利裳(中 略)俊賴歌, 雉子鳴須多野亦君我俱知居呂 遊比坐良牟(卷一六仁德紀俱知解)</p>
王(コニキン) 君(キン)	コニ: 큰(大) キン: 것시(것이)		<p>◎周書百濟傳 王姓夫餘氏, 號於羅瑕民呼爲韓吉支, 夏</p>

韓 語	意 味	日本書紀記錄	備 考
			<p>言竝王也，妻號於陸。夏言妃也。(卷四九)</p> <p>◎三國史記：居西干</p> <p>◎好太王碑文：安錦</p> <p>◎日本書紀：早岐</p> <p>◎古事記：漢紀武</p>
上哆唎(オコシ タリ) 下哆唎(アルシ タリ)	<p>オコ：ウキ，上</p> <p>シ：天爾遠波‘曾</p> <p>戸茂梨’의 ‘戸’</p> <p>タリ：任那地名</p> <p>*본디는 ‘タコリ’</p> <p>アル：아래 下</p>	<p>◎冬十二月 百濟遣使貢調，別表請任那國上哆唎・下哆唎・娑陀・牟羅 四縣 (一七繼體六) 기타</p> <p>◎下韓(アロシカラ，アルシカラクニ)(欽明二)</p> <p>◎加羅上首位</p> <p>*上：ヲコシ，ウヲコシ (欽明二)</p> <p>◎新羅下早岐</p> <p>*下：アロルシ(欽明二)</p> <p>*下：アロシ，アルシ(欽明五)</p>	<p>◎日本書紀通證</p> <p>於古之，阿留之皆韓語也</p> <p>*日本書紀一四，雄略記，二一年，所引‘日本書紀’</p> <p>以久麻那利賜末多王，蓋是誤也，久麻那利者任那國下哆呼唎縣之別邑也</p>
帶山城(シトロ ムレサシ)	<p>シトロ：‘トロシ’</p> <p>의 倒置로 돌</p> <p>씩</p>	<p>◎築帶山城距守東道(一五顯宗三)</p>	<p>日本書紀通證</p> <p>◎帶山城志登呂蓋韓語也</p>
質(ムカハリ)	<p>ム：무.</p> <p>カハリ：갈(遞)</p>	<p>◎百濟王義慈入王子豐璋爲質(ムカハリ)(舒明三)</p> <p>◎自斯質達率武子之子(皇極二)</p> <p>◎新羅王遣沙喙部沙浪金多遂爲質(李德大化五)</p> <p>◎新羅別以及浪彌武爲質(齊明元)</p>	<p>◎白鳥庫吉・日本書紀に見えたる韓語の解釋</p> <p>*さればムカハリは純然たる邦語身代(ミカハリ)にて翻譯し得べし。</p>
熟(ニヒリ) 母(オモ)	<p>ニヒ：니. 니히.</p> <p>リ：어</p> <p>*熟皮：니힐가죽</p> <p>オモ：어머，母</p>	<p>◎今大倭國山邊郡額田邑熟皮高麗 是其後也(一五仁賢六)</p> <p>◎國主母嬪(ニリムノオモ)(二四皇極元)</p> <p>◎初孔舍衛之戰，有人隱於丈樹，而得免難，仍指其樹，曰恩如母，時人因號其地曰母木邑(オモノキノト)今云飯閑迺奇訛也(三神武)</p>	<p>◎日本書紀通證</p> <p>仁德紀，韋訓乎之加波，此訓余比利，蓋韓語也(二〇卷)</p> <p>◎古事記傳 卷十二二丁</p> <p>凡て於母(オモ)と云は，親母(オヤ)にまれ乳母(メノト)にまれ，兒(コ)に乳(チ)を飲(ノマ)しむる人の稱(ナ)なれば，親母(オヤ)とせむも違はず 親母(ハハ)を於母(オモ)と云も乳をのまし養ふことにつきての稱(ナ)なり 然るをただ波々(ハハ)の古言とのみ心得て，乳養のここにあずからぬ處の母字をもなべて於毛と訓ムはひがことなりされど中卷玉 垣，宮 段に，取御母(ト</p>

韓 語	意 味	日本書紀記錄	備 考
			<p>リシオモラ)とあるも乳母(チオモ)なり。</p> <p>◎同二四의 五六丁 御母は美淤毛(ミオモ)と訓むべし、乳母(チオモ)、を云なり、淤毛(オモ)と云は、兒を養育(ヒタ)す事(ワザ)をする 婦人(ヲシナ)を、凡て云稱(ナ)なり其中に乳母(チオモ)は殊に 主(ムネ)とある者なる故に、唯に淤毛とのみ云なり、又親母(ハハ)も主(ムネ)と養育(ヒタ)す者なる故に、淤毛(オモ)とも云 他其</p>
王(オラカ), 妃(オリク)		<p>◎立中夫人子(トモ) 爲王 オリコケ), 年八歲, 狛 王有三夫人(ヲリクク), 正夫人無子(トモ), 中夫 人生世子(マカリトモ). (一九 欽明 七所引百濟 本記)</p>	<p>◎日本書紀通證 中音苦, 夫人崇峻紀訓於利久(二四) ◎周書 卷四九百濟傳 王姓夫餘氏, 號於羅瑯民呼爲韃吉支, 夏言 竝王也, 妻號於陸, 夏言妃也 * 於羅瑯: オリコケ 於 陸: オリク</p>
夫人(ハシカ)	<p>ハシ: 큰, 大 カシ: 妻 * 가시, 각시, 가 시내</p>		<p>◎白鳥庫吉 '日本書紀'に見えたる韓語の解釋. 韓語また夫人をハシカシと云ふ思ふにハシ カシのハシは波沙寐錦の波沙, 居而干の居 西に當る言にして大の義なるべし. カシは 土耳其語の katy と同言にして妻の義なり</p>
女郎(エハシ)			<p>◎白鳥上記論文: 韓語女郎をエハシと云ふ *土耳其語等: kyz 蒙 古 語: okin 匈 奴 語: 居次 韓 語: 계집</p>
子(トモ)			<p>◎白鳥上記論文 今朝鮮語子を 아들(アトル)と云ふ『書紀』 子をトモと訓ませたと同言なるにや.(中 略) 도령(トリヨング)は兒童の義なり. 古 語トモと音相近し</p>

이러한 項目들을 설명하고 난 다음 白鳥庫吉(明治 30)은 書紀에 보이는 韓語는 거의 解釋 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들이 日本語와 極히 類似性을 가지는 것은 偶然이 아니며 “昔 日兩國言語가 서로 가까웠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日本書紀에는 白鳥(明治 30)이 지적한 것보다 더 많은 數의 韓語가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들의 正確한 索出과 그 解釋은 韓日 兩言語의 專門家들에 의해서 未來에 이루어져야 할 課題들이라고 생각된다.